

일계인디아스포라의 LA리틀도쿄(Little Tokyo) 형성과 재미한인관계 고찰*

임영언**
yimye@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 LA리틀도쿄와 일계인박물관 건립과정 |
|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4. 결론 및 시사점 |

주제어: 일계인(Nikkeijin), 일본인 이민자(Japanese Immigrants), 리틀도쿄(Little Tokyo), 태평양전쟁(Pacific War), 박물관(Museum), 재미한인(Korean-American)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인의 미국 진출과 리틀도쿄의 건설, 태평양전쟁과 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고찰하고 일계인과 미국정부와의 관계, 특히 일계인과 재미한인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리틀도쿄(Little Tokyo)는 일본인의 대량 이주가 탄생시킨 미국 최대의 일계인 타운(집거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현재 일계인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계인 2세 병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의 기념비 등 일계인의 역사적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고도경제성장 이후 미국에 진출한 일본인 기업주재원이나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¹⁾

리틀도쿄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6년 말 현재 일계인 43만 명(32.8%)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미국 내 일본인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인 이민자들 대부분이 농장이나 공장, 철도건설 현장에서 일일노동자로 일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농장경영에 성공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일본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665).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1) 南川文理(2009)「多人種都市ロサンゼルスと環太平洋の想像カーリトルトーキョー / ブロンズビルの経験から」『立命館言語文化研究』21(4)、pp.175-184

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의 본격적인 미국이민은 1866년 하와이 이주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차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북부 성장 도시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남하하기 시작했다. 19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지진 피해 지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대거 이동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인의 급증으로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공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일본인들이 급증하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일본위협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한 일본인들은 차이나타운으로부터 가까운 도시중심부 주변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일본위협론이 강화되고 ‘배일이민법’이 등장하자 LA리틀도쿄로 모여들면서 미국 최대의 일본인 마을(Japanese Town)을 형성하게 되었다.²⁾ 1929년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이 로스앤젤레스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리틀도쿄(Little Tokyo)는 일본인들의 피난처로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통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리틀도쿄가 미국의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경제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대부분이 제1차산업이었던 야채농업(정원업, 화원업, 식목업, 어업 등)에 종사하여 성공했기 때문이었다.³⁾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계인들은 미국에서 ‘적성국민(Enemy Alien)’으로 낙인찍혀 배일운동이 더욱 가열되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1942년에는 일계인 12만 명이 강제퇴거 명령으로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계인부대가 하와이 지원자를 중심으로 미군에 편성되어 미국에 충성심을 보여주는 계기를 삼기도 했다. 전쟁이후 1952년에는 일본인의 미국국적 취득이 가능해졌고 1956년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철폐되어 일본인의 토지소유도 가능해졌다. 1988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수용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결정하였고 2000년에는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일계인 2세 병사에 대한 훈장이 수여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 1941년 미일간의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리틀도쿄를 떠나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일계인들이 생활터전이었던 리틀도쿄로 돌아오자 그곳은 게토화 된 전형적인 빈민촌의 모습이었다. 일계인들은 리틀도쿄의 복구에 온힘을 기울여 5년 만에 리틀도쿄의

2) 배일이민법: <https://ja.wikipedia.org/wiki/배일이민법>(검색일: 2017.09.19.). 1924년 시행된 미국이민법, 혹은 존슨리드 법(Johnson-Reed Act)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각국 이민자의 연간 수용자 상한선을 1890년 국제조사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각국 출신자 수를 기준으로 2%이하로 낮추는 이민법으로 1890년 이후 대규모이민이 시작된 동유럽출신자 및 남유럽출신자, 아시아출신자의 이민을 제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아시아출신자에 대한 전면적 이민금지조항이 설정되어 당시 아시아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배제되었다. 이 법안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다가보다는 백인이외의 모든 인종의 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3) 앞의 논문, 南川文理(2009), p.181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리틀도쿄 중심부가 LA주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 리틀도쿄의 재개발 계획에 의해 당시 그곳에 정착해 있던 다수의 일본인 자영업자들이 LA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일계인들은 퇴거조선으로 조건으로 일본인 마을(Japanese Village)의 건설을 요구하였다. LA시 당국은 이를 수용하였고 일본기업 진출로 자신의 매출을 걱정하고 있던 자영업자들도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후 일본인마을에는 일계인박물관과 리틀도쿄 도서관이 차례로 완성되어 공식적으로 일계인문화를 계승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을 형성하였다. 일계인 도서관은 미국 내 일본인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계인 문화를 기록한 일본어와 영어 문헌, 일계인들이 창조한 정신문화, 일계인의 생활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일본인 마을로 불리는 리틀도쿄가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위상을 확보하게 되기까지는 ‘일계인 2세 부대’의 태평양전쟁 참전과 강제수용소의 경험 이 컸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일계인의 중심지가 리틀도쿄였고 향후에도 여전히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일계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지역이다.

이 연구는 일계인들이 미국인이면서 일본이라는 ‘적성국가’의 국민으로 취급되어 태평양전쟁 참전과 강제수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리틀도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2017년 2월에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한 LA 리틀도쿄의 현지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유일한 일계인 집거지였던 ‘리틀도쿄(Little Tokyo)’가 일본문화의 중심지인 일본인 마을(Japanese Village)로 어떻게 재탄생 되었는지, 그리고 일계인 2세의 참전과 강제수용소의 경험을 계승하는 중심지로서 일계인 박물관을 건설하여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의 재형성의 장소로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일본인의 미국진출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상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전쟁 전후 일본과 해외로 진출한 일계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는 일본패전으로 인한 국내사정으로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일계인’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용어

로 정착되었다. 흔히 ‘일계인’이라는 의미는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가리킨다.⁴⁾ 또한 ‘일계인’이라는 용어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적으로 일본계로 간주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과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일계인’이란 정의는 인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인이라는 의미에서 민족적으로 일본인, 즉 민족적으로 일본계라는 뜻으로 의미를 확장해 왔다.⁵⁾

이에 대해 최민경(2012)은 일계인의 범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확장되기도 했지만 일본정부가 일계인의 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인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좁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⁶⁾ 이러한 일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 내 일계인을 연구한 카지타 다카미치(梶田孝道, 2005)⁷⁾나 패전 직후 일계브라질인의 상황을 연구한 마에야마 다카시(前山隆, 1996)⁸⁾ 등 일본 내 일계인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거주 일계인보다는 중남미 일계브라질인에 부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계인의 범위에 대해 일본계 미국인보다는 중남미 일계브라질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축소경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일계인 범위의 확장성에 대한 논쟁은 오구마 에이치(小熊英二, 1998)⁹⁾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일본정부가 약소국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단일민족신화를 강조하였으며, 반대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혼합민족론’을 강조하여 이민족집단을 포섭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945년 전쟁 이후 일본정부에 의한 일계인의 범위설정은 고도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기반을 둔 일본 영향력의 강화에 따른 일계인의 범위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경험한 후 ‘재확장’이라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계인의 범위설정에 대해 최민경(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45년 패전직후 일본은 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던 일본인들의 모국귀환이 선결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다.¹⁰⁾ 따라서 당시 해외에 거주하던 일계인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던 일계인들도 마찬가지로 1941년 태평양전쟁 참전과 1945년

4) 일계인에서 ‘계’란 ‘계통’이라는 뜻으로 어떤 체계에 따라 상호 관련 있는 부분들이 구성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계인의 민족성은 일본인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체계 하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이외는 달리 해외 거주 일본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재류방인’, ‘재외방인’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 福田友子(2002)『国家による成員の選別過程：1990年入管法改定と「日系人」を事例として』『社会学論考』23, pp.31-56

6) 최민경(2012)「전후 일본 정부의 일계인에 대한 인식 변화」『아세아연구』55(2), pp.153-154

7)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2005)『顔の見えない定住化』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8) 前山隆(1996)『エスニシティとブラジル日系人：文化人類学的研究』東京：お茶の水書房

9) 小熊英二(1998)『「日本人」の境界—沖縄・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東京：新曜社

10) 앞의 논문, 최민경(2012), pp.143-144

일본의 패전에 의해 일본과 일제인의 단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하야오 다카노리(早尾貴紀, 2009)는 근대 이후 일본인의 해외이주가 역사적, 집단적, 정치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¹⁾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모국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일본과의 단절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태평양전쟁은 미국정부가 일제인디아스포라에게 배일이라는 명분하에 ‘미국화’와 충성 등록을 강요했으며 일제인 2세의 전쟁참전으로 이어져 일본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인의 강제수용과 일본에 대한 인식, 미국사민으로서의 사회적 통합을 다룬 연구는 미나미가와 후미노리(南川文理, 2009)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LA리틀도쿄를 중심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제인과 경제대국 일본과의 적대 관계를 다루면서 전쟁으로 인해 당시 호의적이었던 일제인의 이미지의 붕괴와 일제인 사회의 제도적, 경제적 기반의 단절을 주장하고 있다(南川文理, 2009).¹²⁾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일본과 일제인의 단절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후 일본과 일제인 역사의 연계 및 ‘재확장’이라는 관점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일본과 일제인의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단절된 역사의 복원으로서 리틀도쿄의 재건과 일제인박물관의 건립, 다민족과의 협력관계로서 일제인과 재미한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일제인 관련 기존연구들이 미국거주 일제인의 차별과 배제, 전쟁참전, 강제수용소경험과 보상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된 일제인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정부와 일제인과의 관계, 일제인과 재미한인과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일제인공동체의 일본과의 단절된 역사의 복원과 재미한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식민지해방 이후 당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이민지에서 상호 한일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미한인들이 어떻게 일제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갔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미국이민사회에서 아시아 소수민족간의 다양한 협력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11) 早尾貴紀(2009)「ディアスポラと本来性：近代的時空間の編成と国民/非国民」赤尾光春・早尾貴紀編著『ディアスポラから世界を読む：離散を架橋するために』明石書店、pp.166-206

12) 앞의 논문, 南川文理(2009)、p.182

3. LA리틀도쿄와 일제인 박물관 건립과정

3.1 일본인의 해외진출과 배일의 역사

일본인의 미국진출은 메이지시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일본에서 미국하와이로의 최초 일본인노동자들이 이주한 것은 1868년(메이지원년)이다. 당시 이들 이민자들은 모두 148명으로 메이지 원년에 떠난 이민자들이란 의미에서 이들을 ‘원년이민자’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들 원년이민자들은 일본에서 주로 낭인(건달)이나 불량배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노동성과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와이정부 역시 일본인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후 약 20년간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를 금지시켰다.

미국 대륙 본토로의 일본인 이민 제1호는 아이즈전쟁(会津戦争, 1868년)에서 메이지신정부 군에 패배한 아이즈 와카마쓰(会津若松) 출신자들이었다. 아이즈한(会津藩)은 미국 내에 와카마쓰령(若松領)을 건설하여 일본인의 대량 이주계획을 세우고 1869년 이민선발대를 캘리포니아 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인 이주계획은 실패로 끝나 미국본토로의 일본인 이민재개는 1880년대 중반 경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개화파의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쓴 ‘서양사정(1866-1870년)’과 ‘서양여행안내(1867년)’의 유행으로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일본인 유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항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는 1885년 이후 일본인 이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1881년 일본 메이지천황을 방문한 하와이왕국 카라카우아왕이 인구감소가 걱정했던 하와이에 일본인 노동자의 대량 이민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경제사정은 특별히 발달된 산업이 없었고 경제불황과 농촌의 피폐로 심각한 잉여노동의 인구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약이민제도를 시행하여 1885년 2월부터 증기선 ‘시티 오브 도쿄호’를 이용하여 제1회 일본인 관약이민자 944명을 하와이로 이주시켰다. 일본정부의 관약이민은 이후 9년간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일본인 약 3만 명 정도가 3년간의 계약으로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이민자들 대부분은 일본 농촌불황을 실제로 경험한 독신의 영세자작농이나 소작농들로 지역적으로는 히로시마 현, 야마구치 현, 구마모토 현, 후쿠오카 현 출신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1885년경부터 관약이민으로 하와이로 떠난 이들 일본인이민자 약 3만 명 가운데 13,000명 정도가 혹독한 노동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2,000명 정도가 하와이에서 사망하였으며 870명 정도가 미국본토로 건너갔다. 그리고 나머지 13,000명

정도가 하와이에 잔류하였다. 일본인 관악이민자들이 미국본토에 이주한 것은 미국에서 골드 러시가 유행한 이후 노동자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하와이보다 미국본토에서 임금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국세조사에 의하면 1890년 미국 거주 일본인 이민자는 2,039명, 1910년에는 72,000명, 1930년에는 140,000명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러일전쟁 기간인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일본이 경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 독신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일본인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 서해안지역으로 이동하여 영어가 필요 없는 저임금의 공장노동자, 철도노동자, 통조림공장 노동자 등에 종사했다(柳田由紀子, 2012).¹³⁾ 이후 하와이 일본인 이민은 민간이민회사시대(1894년), 자유도항시대(1900년)를 거쳐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에서 일본인 이민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1924년까지 약 220,000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일본인들이 미국사회에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미국인의 배일의 기운도 높아갔다. 먼저 미국정부는 1790년에 만든 ‘귀화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귀화권을 ‘백인’에만 한정하도록 제한하였다. 1870년경 이 귀화법은 개정되어 귀화권을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자손’으로까지 확대하였지만 아시아인은 제외되었다. 아시아인은 귀화권 이외에도 직업, 거주, 결혼 등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귀화법이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일본인 이민자들의 근면 성실성은 타 민족 직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노동으로 모은 돈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송금했다. 또한 일본인들은 미국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일본인들끼리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점차 일본인 이민자들은 농업노동자에서 자작농, 상점주, 혹은 일반기업가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존재는 백인사회를 매우 위협하는 강한 ‘경쟁자’로서 부상하면서 백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불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미국의 불경기가 일본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배일운동은 더욱 촉발되었다. 미국정부의 배일운동의 첫 번째 조치는 샌프란시스코 시 교육당국이 일본인학생을 공립학교로부터 격리시키는 결정이었다. 이후 미국은 하와이나 기타 미국 본토 이외지역을 경유한 일본인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1908년에는 ‘미일신사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였다. 1913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일본인 대상의 ‘외국인토지법’, 혹은 ‘배일토지법’을 제정하여 ‘귀화불능 외국인과 법안’의 농지구입,

13) 柳田由紀子(2012)『二世兵士激戦の記録：日系アメリカ人の第二次大戦』新潮新書, p.32

토지임대, 매각, 증여 등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20년경에는 일본인 입국금지로 미국 내 일본인끼리의 결혼이 힘들어지면서 일본인 사진결혼자가 급증하여 ‘사진신부’가 약 20,000명에 달했다.¹⁴⁾ 1924년에는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이 성립되었고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일본인 이민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3.2 리틀도쿄의 탄생

일본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의 여파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면서 차이나타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가 점차 LA도시중심부로 모여들었다. 1902년 당시 일본인의 리틀도쿄 거주비율은 LA중심부에 일본인 전체 인구의 20%비율로 1905년에는 30%에 육박하여 집거지의 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1905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린 일본인들이 이동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인 배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마을의 광경에 대해 1906년 12월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지(『LA타임지』 1906.12.2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¹⁵⁾ “4월 샌프란시스코 지진이후 로스앤젤레스에 일본인 인구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유대인계가 차지하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거리와 아라메다 거리는 모두 일본인들로 채워졌고 주변지역도 계속해서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 유대인 정육점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생선만 먹고 육류는 먹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1906년까지 LA는 특별히 배일(排日)의 기운이 없었지만 1907년 1월 LA타임지가 신문지상에서 일본위협론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배일의 도시로 바뀌었다.¹⁶⁾

14) 사진신부: <http://abetomo.net/yasujiro/picture.shtml/> 검색일: 2017년 9월 19일). 당시 일본인 이민1세의 대부분은 단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남성들이 많았고 백인여성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고 일본인이외의 여성과의 결혼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인 이민1세들은 결혼상대 여성을 일본으로부터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장기간 일을 쉬거나 일본에 귀국하여 결혼할 여유가 없었고 일본 체류가 장기화되면 질병당할 위험이 존재했다. 더욱이 1908년 ‘신사협정’으로 일본에서 가족초청이외의 일본인 미국이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인남성은 미국에 있으면서 고향친척의 소개로 사진교환으로 맞선을 보고 결혼이 결정되면 일본 호적에 기재하여 남편의 가족초청으로 아내를 미국에 초청하는 경우를 사진신부(Picture Bride)라고 불렀다.

15) LA타임지 1906년 12월 23일자 보도기사

16) 미국에서는 흔히 일본인을 애칭으로 ‘Jap’으로 부르기도 했다. 페리원정대가 일본에 오기 50년 전인 1800년부터 미국은 네덜란드의 용선이 되어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 일본인을 저팬니즈(Japanese)로 불렀다. 1880년대 초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이한 문화를 가진 작은 나라의 애칭으로 ‘Jap’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돈넬이 188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JAPS MUST GO”라는 슬로건을 선거에 이용한 이후 멸시의 대상이라는 차별적 의미와 요소가 가미되었다. LA에서는 멸시경향이



자료: 2017년 2월 LA리틀도쿄 현지에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임.

<사진1> 리틀도쿄 지도와 중요장소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며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LA도시 중심부 주변에 분산되어 생활하던 일본인들은 점차 일본인 마을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1907년 리틀도쿄에 일본인 집중도가 40%에 달해 마침내 지금의 리틀도쿄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1910년경 일본인의 리틀도쿄 집중도는 약 50%에 달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들이 리틀도쿄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배일로 인한 일본위협론 이외에도 임대료가 매우 쪼들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리틀도쿄 지역에 소수민족들이 유입하게 된 배경에는 홍수가 잦아 생활이 불편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리틀도쿄 내 대부분의 건물주는 유대인들로 일본인들이 쉼도하자 비싼 임대료를 제안했지만 변화기의 임대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리틀도쿄에 집중하였다.

LA일본인마을의 탄생은 건물주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가게주인이나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1908년부터 이곳을 ‘Little Tokio’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당시 ‘Tokio’라는 지명은 LA산타모니카에 ‘Tokio’라는 역명이 생겨나면서부터 붙여졌다. 1908년 중반부터 ‘Little Tokio’라는 지명은 LA를 중심으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였다. 이 무렵 LA에서 일본인에 대한 배일이 거세기는 했지만 백인 남성들에게 일본인마을은 유흥의 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1908년 초반 ‘Little Tokio’는 미국중장년들에게 유흥의 장소로

약간 늦어져 배일로 전환된 1907년까지도 양쪽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사용되었지만 배일이민법이 제정된 1913년 이후 배일 일변도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소문이 나면서 유명장소로 바뀌었다. 이후 당시 미국 각 도시에 있었던 각종 일본인마을이 ‘리틀도쿄’로 불리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지역적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는 리틀 오사카, 시애틀은 리틀고베 등 다양한 명칭을 붙였다.

<표1> 리틀도쿄 주변 일제인 관련 주요 문화 시설¹⁷⁾

일제인 시설	시설 소개내용
저팬타운 랜드마크	재미일제인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기념비
안전 철물상회	일본의 정원용품, 족세품, 일본 칼의 장인에 의한 나이프, 부엌용품, 철물 전반
풍월당	사탕, 빙수, 샌메 등의 일본과자점, 리틀도쿄 시니세
GO FOR BROKE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군으로 종군한 청년 일계미국인에 대한 전시NATIONAL EDUCATION CENTER
제2차세계대전전몰자 기념비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군에 종군하여 전몰한 일계미국인 현창하는 기념비
전미일제인 박물관	일계미국인 1세부터 현대까지에 이르는 역사박물관. 도서관과 선물숍 운영
니시혼간지	1905년 퍼스트 센트럴 거리에 창립되어 1969년 현재장소로 이전
오니즈카 스트리트	최초 일계아메리카인 우주비행사 오니즈카 쇼지의 이름을 명명한 거리. 로켓트형 기념비 건립
더블 트리 힐튼호텔	호텔 내 교토식 일본정원
문화당	일본의 칠기, 자기, 가문, 인형, 완구, 향, 와지, 카드 등
다가노야마 미국별원	1912년 창립 1940년 현재장소로 이전
긴자 USA	일본과 미국의 토산품, 칼, 기모노, 일본 수집가에 의한 판화, 골동, 리틀도쿄 오리지널 토산품 등
아니매 정글	엔터테인먼트 상품 전문점. 일본 애니매, 특수촬영 영화 특화
선종사	1922년 창립
일미문화회관(JACCC)	전시, 선물숍, 지하층 일본 정원조성
히가시혼간지	1904년 설립, 1976년 Boyle Height로부터 현재 장소로 이전
라후물산	일본식기, 핸드메이드 석기, 도기, 칠기, 칠기, 부엌용구, 일본인형, 생화용품 등
정도종	1937년 창립. 1992년 West Jefferson 지역에서 현재장소로 이전

자료: 2017년 2월 LA리틀도쿄 현지에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리틀도쿄는 1919년까지 LA신문지상에서 ‘Little Tokio’로 표기되었지만 1921부터 ‘Little Tokyo’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1920년 일본에서 해외로 발신되는 모든 신문지상에서

17) 2017년 2월 미국 LA리틀도쿄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Tokio’보다는 ‘Tokyo’를 더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쿄의 지명은 ‘Tokyo’로 표기하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독일은 발음하기 쉬운 ‘Tokio’를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도시에서는 일본인 거주지역을 일본마을(Japan Town)로 불렀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만은 일본인마을(Japanese Town)로 불렀다. 그 이유는 LA에서 배일의 보호구역으로서 ‘일본인마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일본마을(Japan Town)은 일본정부의 조차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집결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일본인마을(Japanese Town)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리틀도쿄 내 거주하는 일계인들은 가게의 간판도 가능한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였고 백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일본어 사용을 금지하여 철저히 미국에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전쟁 후 미국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계인상점은 미국인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3 일계인 2세의 충성등록과 미국화, 태평양전쟁 참전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정부는 하와이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당시 하와이에는 전 인구 약 42만 명 중 약 40%에 해당되는 13만 명 정도의 일계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본토에서 선발징병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0년 9월이었다. 미국성인 남성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징병제도는 미국거주 일계인 2세들도 포함되었다. 전쟁당시 하와이 일계인 2세 출신 병사들은 약 2,000명 정도로 보병연대에 배속되어 국토경비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으로 미국 정부는 일계인 2세 병사들을 갑자기 병역적격자에서 연령부적격자, 적성외국인, 병역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일계인 징병을 금지시켰다.

미일전쟁 중인 1942년 11월 말에는 군대에 가지 못했거나 강제수용에서 벗어난 일계인 2세들이 병역복귀청원서를 미국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때는 마침 미국정부도 유럽전선에서 싸워줄 ‘소모부대’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미국육군은 기존 일계인 2세 병사들을 적성외국인이나 병역부적격자에서 병역적격자로 전환시켜 하와이 제100보병대외는 별도로 일계인 병사만을 대상으로 ‘제442연대전투부대’를 편성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시민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시민권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민주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모든 충성스런 미국시민은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야 한다. 미국화(Americanism)는 지성과 정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미국화가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였던 적은 결코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주장하였다(ハワイ日本人移民史刊行委員会 1964).¹⁸⁾ 거기

에다 일계인 2세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 원래 일본인의 핏속에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던 충성심과 같은 것으로 의무이자 일본인의 정신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43년 2월 1일 미시시피 주 셀비 기지에서 제442연대 전투부대가 탄생되었다. 미국 본토의 기존병사를 기반으로 미국육군은 4,500명 정도의 지원병을 모집했다.

이렇게 하여 당시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일계인들에게 기존방침을 변경한 미국육군은 17세 이상의 일계인 남녀 강제수용자들에게도 ‘충성등록’을 강요했다. 당시 일계인 대상의 ‘충성등록’은 일종의 사상검증으로 제442연대 전투부대 지원병과 일계인 징병을 목적으로 한 조사였다. 이 충성등록 조사에서는 생년월일, 직업경력, 외국어능력 등 총28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7번과 28번 질문항목이었다. 가령, 27번 항목에는 ‘당신은 명령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미국육군병사로서 전투임무를 달성하겠습니까?’ 28번 항목은 “당신은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외국 또는 국내세력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확고히 지키고 일본의 천황이나 다른 외국정부, 세력,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복종을 거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충성등록조사를 둘러싸고 일계인들 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계인 강제수용자들은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충성등록 후 미국육군은 제442연대 전투부대에 대한 지원자를 선발했다. 그리고 1944년 1월부터 일계인 징병을 재개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계인 2세부대의 참전은 미국 내 일본인 문제가 뿌리 깊은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시기에 일계인 2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일본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매우 어려운 사회정세와 복잡한 신분, 현실적인 문제들이 얹혀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제442연대 전투부대의 지원병 모집소식에 하와이에서는 일계인 2세들이 미국장병국에 쇄도하였다. 미국육군은 당초 지원병 4,500명 정도의 모집을 예상하고 미국본토에서 3,000명, 하와이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만 약 10,000정도의 일계인 2세들이 입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초 목표인원의 2배 가까운 2,689명이 입대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미국 본토 강제수용소에서는 목표 3,000명에 대하여 지원자는 1,181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입대에 지원한 이유는 일계인 2세들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지원병을 모집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하와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전쟁터의 불안감, 일본충성파(충일파)의 세력이 하와이보다는 LA쪽이 강하여 본토 일계인 2세들에게 입대지원에 배신행위와 다름 없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일계인 2세 병사는 강제수용소 출신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작용하여 적대감이 강했던 반면 당시 하와이 출신 일계인 2세 병사들은

18) ハワイ日本人移民史刊行委員会(1964)『ハワイ日本人移民史』凸版印刷株式会社, pp.354-355

본토의 강제수용소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자원입대라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3.4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리틀도쿄의 재탄생

1941년 시작된 태평양전쟁으로 리틀도쿄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계 요코하마은행이나 수미토모은행은 업무정지명령으로 폐쇄되었다. 미국은행은 미국시민이었던 일제인 2세 대상의 업무는 취급했지만 일제인 1세들은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거부했다. 전쟁으로 일제인 상점들이 폐점되고 리틀도쿄거리에는 곧바로 미국경찰들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또한 미일 전쟁에 의해 적국이 된 각국의 지도자들은 위험인물로 체포되었다. 당시 적국지도자로서 체포자는 나치사회주의 독일인이 약 7,000명, 일본인 약 5,400명, 이탈리아인 약 3,000명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시민들의 강제억류와 수용소생활은 일제인에 한정되었다. LA일제인들은 내륙으로의 자발적 이동과 멘자나수용소 설치를 미군으로부터 요청받고 먼저 멘자나에 선발부대를 파견하였다. 먼저 의사, 간호사, 타이피스트 등을 포함한 약 6,000명이 1942년 3월 리틀도쿄 근교 메리놀 교회에 모여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수용소로 향했다. 이어 강제수용소 설치부대에 응모한 일제인 약 600명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도중에 일제인 강제수용의 방침이 바뀌어 리틀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일제인들은 유니온교회에 모여 임시수용소인 산타아니타 경마장으로 향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의 투하로 태평양전쟁이 종식되면서 일제인들은 멘자나수용소에서 리틀도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제인에 대한 유화정책은 일제인 제442연대 전투부대의 절대적인 공헌이 컸다. “Go for broke”을 구호로 참전한 일제인 제442연대 전투부대의 부대원 약 500명은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워 가슴에 훈장을 달고 귀환하였다. 당시 일제인 제442연대는 전쟁의 격전지만을 골라 참전하였으며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나중에 일제인부대 병사들은 3,600여개의 미국 명예전송훈장과 가장 권위 있는 국회 명예훈장 2,000여개를 수여하였다(五明洋 2008).¹⁹⁾

영어의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의 원래 의미는 ‘전부를 걸다. 있는 힘을 다하다. 전 재산을 쏟아 붓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도박으로 파산에 이를 때까지 끝장을 본다는 의미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구호가 바로 제2차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유럽전선에 참전한 일제인 2세들의 구호였다.²⁰⁾

19) 五明洋(2008)『リトル東京-ロサンゼルスに花開いた日本文化-』株式会社青心社, pp.187-188

20) 일제인 2세들은 미국대륙, 혹은 미합중국에서 일본인이민자녀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2세는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으로 향한 메이지기 출생 혹은 에도말기 출생

이 구호는 1941년 12월 7일(일) 아침에 발생한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폭격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인 약 3,000명 정도가 사망하자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강제수용소에 수용시켜야 한다. 그들을 몰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미국인 대다수가 이러한 전쟁의 정서에 동의하고 있었다. 결국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약 12만 명에 달하는 일계인들은 태평양전쟁 기간인 1944년 12월 17일까지 강제수용소에 2년 반 동안 수용되어 수용소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계인 강제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럽 전선에 참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33,000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제442연대(442nd Regimental Combat Team)가 유럽의 최전선에 투입되어 미국에 대한 일계인의 ‘애국심을 입증’을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가 일계인 제442연대로 부대원들이 수여한 무공훈장만 18,143개 달했다. 이때 일계인 제442연대에서 가장 맹활약을 펼친 인물이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대령이었다.²¹⁾ 당시 일계인 제442부대원들의 구호가 바로 “Go for broke”이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일계인 퇴역군인들을 중심으로 1989년 ‘Go for broke 전미교육센터’가 설립되어 회원 수가 약 18,000명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센터는 일본 도요타나 혼다 등 일본기업의 미국본사가 들어서 있는 일계인타운에 자리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일계인 병사들이 공헌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o for broke’을 구호로 유럽전선에 참전한 제100보병대대를 포함한 제442연대전투부대의 공헌을 들 수 있다. 둘째, 태평양 주변 섬과 아시아에서 일본어능력을 발휘한 정보어학병의 활약으로 그들의 임무는 일본병사를 투항시켜 포로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일이었다. 셋째, 전쟁 후 GHQ(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의 재건에 공헌한 점 등이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일계인 강제수용소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16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죄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일계인을 강제수용소에 억류한 것이 “인종적 편견, 전쟁공포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서 비롯된 미국정부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여 성립되었다. 1999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리틀도쿄(Little Tokyo)에 있는 ‘일계인 박물관(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 주변에 ‘고 포 브로크 기념비(The Go For Broke Monument)’가 세워져 이들을 기념하고 있다.²²⁾

한 양부모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을 가리킨다.

21) 김영옥(Young-Oak Kim, 1919-2005)대령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일계인들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4. 일계인 박물관 건립과 재미한인의 협력관계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 리틀도쿄에는 약 38개의 일계인 상점들이 영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같은 해 연말에는 자영업자들이 120개 정도로 증가하였다. 당시 리틀도쿄에는 병원이 나 치과의원이 21개, 방 임대업이 20개, 음식점이 18개 등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주거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아파트임대업이나 호텔업도 번창했다. 전쟁 후 리틀도쿄는 과거의 일본인마을로 재빠르게 회복되어갔지만 전쟁 전 번영의 모습은 되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계인들은 전쟁 전 리틀도쿄를 번영시킨 농업이나 어업 등을 과거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리틀도쿄의 농지의 75%가 공업 용지나 택지로 바뀌었고 어업은 일본인이 없는 사이에 일본인어업금지법이 생겨났으며 모든 어업권은 이미 이탈리아 인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표2> 일계인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헌자

일계인 정치인	재계인사	공동체 단체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아트트레스 조 성금 법안 의회제출 LA시의회 토지제공 하와이 주지사 조지 R. 아리요시 하와이 상원의원 다 니엘 K. 이노우에, 스파크 마쓰나가	일계 비즈니스맨 브루스 T. 카지 헨리 Y. 오오타 윌리엄 오오우치 공동위원장 시그 카가와, 노비 야마코시 모금위원 마나비 히라사키 이사 및 보란 티어 플라워 산업 뉴욕 프란시스 Y. 소기 워싱턴 윌리엄 H. 마루모토 포트워스 에이린 야마가타 포틀랜드 조지 아즈마노 산노세 요시 우치다 오렌지 카운티 제임스 오카자키	일계인 공동체 리더 일계인 442부대 퇴역군인회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대령 일계인 Y. B. 미야마 일계인 생존병사 하세이 미야마 코디네이터 낸시 아키라 일본불교사원 니시혼간지 아케미 기쿠무라 학예사 아이린 Y. 히라노 관장 제임스 히라바야시 학예부장 고문위원: 로널드 아카시 박사, 프레드 호시 야마, 데이비드 현, 케이 이노세, 브라이언 가네코, 김영옥 대령, 폴 스미, 미키 다니무 라, 미놀 나이트 보란티어: 미키 다니무라, 마사코 코가 건축가: 데이비드 기쿠치, 요시 니시모토, 프 랭크 사타, 로버트 우에다

자료: 2017년 2월 LA리틀도쿄 현지에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22) 고 포 브로크 기념비(The Go For Broke Monument): (<http://confusingtimes.tistory.com/543>/검색일: 2017년 4월 11일).

1982년 LA리틀도쿄의 일계인 기업가들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일계인 퇴역군인들과 협력하여 일계인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리틀도쿄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며 메리트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일계인 브루스 T. 카지가 리틀도쿄에 계획되어 있던 주거주택 계획에 박물관 병설을 제안하였다. 당시 제2차세계대전 시 일계인 부대로서 유명한 제442연대의 퇴역군인들이 LA카운티 자연사박물관에서 ‘일계인병사’의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시회가 끝난 후 상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²³⁾ 그리고 얼마 후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대령과 일계미국인 Y. B. 미야마를 중심으로 퇴역군인 그룹이 카지에게 연락했다. 실제로 이들 두 그룹이 협력하여 1985년 일계인박물관이 사립 비영리단체로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카지, 김영옥, 미야마 등은 일계인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후세에 계승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일계인 1세들이 급격히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귀중한 유산이 전승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 손자 등 일계인 2세4세들은 조부모와 부모세대의 고통이나 성공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제2차세계대전 중 일계인의 강제수용에 대해 일계인1세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생활용품, 사진, 문서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일계인공동체에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사진자료: 2017년 2월 LA리틀도쿄 현지에서 필자가 촬영하였음.

<사진> 일계인 박물관의 구관(1986년)과 신관(1999년)

23) 일계인 박물관: (<http://www.janm.org/jpn/general/history.html>/검색일: 2017년 3월 30일).

마침내 1986년 협력관계자들이 기대했던 구 니시혼간지(西本願寺)빌딩의 박물관 사용이 LA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50년 간 매년 1달러에 무상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구 니시혼간지 빌딩을 포함한 퍼스트 스트리트 북쪽의 일대가 역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구 니시혼간지 빌딩 자체가 LA시의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1999년 1월 23일에는 구관 맞은편에 신관 일계인박물관 파빌리온이 완공되었다. 박물관 내에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생활고통, 전쟁영상필름, 전시품, 태평양전쟁 참전병사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계인 박물관 파빌리온은 일계 2세의 건축가인 오바타 교(小圃暁)가 설계하였으며 건축의 의미는 두 나라의 문화융합을 표현하고 있다.²⁴⁾ 즉, 두 나라의 문화융합이란 일본문화와 미국문화, 과거문화와 현재문화, 이민1세 문화와 일계2·3세 문화 등 이들 두 개 문화 간의 융합을 상징하고 있다.

미국 내 일계인공동체 건설에 많은 공헌을 한 재미한인은 김영옥대령과 데이비드 현이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형성된 한일 간의 민족감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재미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재미한인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한일협력활동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일계인 공동체와 재미한인과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로서 데이비드 현과 김영옥대령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김영옥대령은 태평양전쟁 때 일계인 2세 부대를 이끈 부대지휘관으로 활동하여 나중에 일계인박물관 건설에 많은 공헌을 했다(민병용 1986).²⁵⁾ 데이비드 현은 LA리틀도쿄 내에 저팬니스 빌리지 플라자(Japanese Village Plaza)를 설계하여 일계인공동체유지와 문화시설 건립에 공헌했기 때문이다(민병용 1985).²⁶⁾ 이들이 리틀도쿄 일계인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사실은 박물관 옆 메모리얼파크에 기념되어 현재까지 일계인사회에 계승되고 있다.

결국 일계인 박물관은 건립은 일계인의 미국 정계 관계자, 재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계인 박물관은 일계인의 전쟁과 강제수용소 경험을 전달하는 미국 유일의 박물관이 되고 있다.

24) 일계인 박물관 파빌리온: (<https://www.nttdata-getronics.co.jp/csr/lits-cafe/sato/la.html>/검색일: 2017년 3월 30일.)

25) 민병용(1986)『미주이민 100년 초기 인맥을 쫓다』LA: 한국일보사출판부, pp.102-106

26) 민병용(1985)『미주이민100년』한국일보출판국, pp.124-125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인의 미국 진출과 리틀도쿄의 건설, 일제인 2세의 태평양전쟁 참전과 일제인 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고찰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거주 일제인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 민족감정보다는 이민자로서 재미한인과 일제인의 협력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일본인의 미국이민은 1866년 하와이로의 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1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인 집거지의 중심지는 리틀도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3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LA리틀도쿄와 하와이 일제인 집거지를 직접 현지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본인의 미국 진출과 리틀도쿄의 집거지 형성, 일제인 2세의 태평양전쟁 활약과 한국이민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의 미국 진출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885년 관악이민이 본격화된 후 많은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건너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하와이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값싼 노동력 때문에 하와이에 거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미국본토로 진출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국에서 일본인의 급격한 팽창은 백인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부상하였고 미국인들에게 배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24년 ‘배일이민법’은 일본인의 미국이민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미국 내 일본여성의 부족현상으로 사진결혼신부들이 유행하였다.

둘째, 190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일본인 위협론과 배일의 유행은 일본인들을 LA리틀도쿄로 집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41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일제인 대부분이 집거지로 부터 격리되어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고 미군입대가 금지되었다. 일제인 2세 병사들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된 동기는 미국군대를 대신하여 유럽에서 싸워줄 소모부대의 필요성 대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쟁참전 독려발언, 일제인 2세의 충성서약과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한 경쟁 심리 등으로 미국본토보다는 하와이 거주 일제인들이 대거 입대하여 유럽전투에 투입되었다.

셋째, 당시 일본을 적대국으로 전쟁에 참전한 일제인 2세 병사들은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를 구호로 전쟁의 격전지만을 골라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병사들 대부분이 미국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전쟁의 결과, 미국정부는 일제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배일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리틀도쿄의 재건과 일제인 박물관 건립 등에 적극 지원하였다.

넷째, 1980년 중반 일제인 기업가와 유지들을 중심으로 리틀도쿄 주변에 일제인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인 1세들의 고령화에 따른 전쟁참전과 강제수용소 경험을 계승하기 위해 일제인 정계와 재계, 공동체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일제인 2세 병사들과 유럽전투를 누빈 김영옥대령과 저팬 니스 빌리지 플라자를 설계한 데이비드 현 등 한국계 이민자들이 포함되어 한일출신 이민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태평양전쟁은 일제인들에게 미국의 적성외국인(Enemy Alien)으로 강제수용 경험과 일제인2세(JACL: 일제아메리카 시민협회)의 충성등록에 의해 전쟁 전까지 유지하고 있던 일본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재미일본인 혹은 일제인으로서의 미국시민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리틀도쿄는 일제인과 일본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지만 그 가운데 존재하는 재미한인과의 역사적 관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제인들은 1941년 미국과의 전쟁 전후 배일정책으로 이미 미국에서 고립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와중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고 일제인들은 강제수용소에서 미국화와 충성등록의 강요에 의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쟁참전으로 일제인들은 미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정착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미국에서 일제인의 전쟁참전과 강제수용소의 경험은 일제인들에게 시민권 부여와 미국사회로의 동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일제인박물관은 일제인 1세의 전쟁참전과 강제수용소의 경험을 일제인 2-3세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일제인 정체성을 ‘재확장’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리틀도쿄의 건설, 재건, 유지는 일제인과 미국현지인뿐만 아니라 재미한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인종적 관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재미한인과 일제인과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연구에서는 아시아 소수민족간의 다양한 협력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민병용(1985)『미주이민100년』한국일보출판국, pp.124-125
 민병용(1986)『미주이민 100년 초기 인맥을 쫓다』LA: 한국일보사출판부, pp.102-106
 최민경(2012)「전후 일본 정부의 일제인에 대한 인식 변화」『아세아연구』55(2), pp.153-154
 小熊英二(1998)『日本人の境界—沖繩・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東京:新曜社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2005)『顔の見えない定住化』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五明洋(2008)『リトル東京-ロサンゼルスに花開いた日本文化-』株式会社青心社
 南川文理(2009)「多人種都市ロサンゼルスと環太平洋の想像カーリトルトーキョー / ブロンズビルの経験から」『立命館言語文化研究』21(4), pp.175-184

- 早尾貴紀(2009)「ディアスポラと本来性：近代的時空間の編成と国民/非国民」赤尾光春・早尾貴紀編著『ディアスポラから世界を読む：離散を架橋するために』明石書店、pp.166-206
- ハワイ日本人移民史刊行委員会(1964)『ハワイ日本人移民史』凸版印刷株式会社、pp.354-355
- 福田友子(2002)「国家による成員の選別過程：1990年入管法改定と‘日系人’を事例として」『社会学論考』23、pp.31-56
- 前山隆(1996)『エスニシティとブラジル日系人：文化人類学的研究』東京：お茶の水書房
- 柳田由紀子(2012)『二世兵士激戦の記録：日系アメリカ人の第二次大戦』新潮新書、p.32
-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 <http://confusingtimes.tistory.com/543>(검색일:2017.04.11)
- 전미일계인박물관의 역사: <http://www.janm.org/jpn/general/history.html>(검색일: 2017.03.30.)
- 『LA타임지』(1906.12.23.)「일본인 마을」
- LA전미일계인박물관:<https://www.nttdata-getronics.co.jp/csr/lits-cafe/sato/la.html>(검색일: 2017.03.30.)

논문투고일 : 2017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7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7일

< 要 旨 >

일제인디아스포라의 LA리틀도쿄(Little Tokyo) 형성과 재미한인관계 고찰

임영언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인의 미국 진출과 리틀도쿄의 건설, 일제인 2세의 태평양전쟁 참전과 일제인 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거주 일제인과 미국정부와의 관계, 민족감정보다는 이민자들로서 재미한인과 일제인의 협력관계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3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LA리틀도쿄와 하와이 일제인 집거지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현지에서 수행한 인터뷰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의 미국 진출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885년 관악이민이 본격화된 후 많은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둘째, 190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일본인 위협론과 배일이민법은 일본인들을 LA리틀도쿄로 집중시켰다. 셋째, 일본을 적대국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일제인 2세 병사들은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을 구호로 전쟁의 격전지를 골라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제인 2세병사들 대부분이 전쟁 후 미국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넷째, 1980년 중반 이후 일제인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리틀도쿄 주변에 일제인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섯째, 한때 리틀도쿄는 일제인과 일본정부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일제인과 재미한인과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일제인 리틀도쿄의 건설, 재건, 유지가 일제인과 미국현지인뿐만 아니라 재미한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인종적 관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아시아 소수민족간의 다양한 협력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Little Tokyo Formatio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hip of Japanese Diaspora

Yim, You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American government,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American and Japanese-American, and focusing on the Japanese entering to the US, the construction of Little Tokyo, the construction of the Pacific War and museums.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he interview survey data from the visit to LA Little Tokyo and the Hawaii for about two weeks from February 3, 2017.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started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many Japanese immigrated to Hawaii in 1885 after the government-guaranteed emigration. Second, the Japanese people was applied by the Japanese exclusion Bill, which had appli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24, allowed the Japanese to concentrate on LA Little Tokyo. However, in 1941, with the Pacific War(World War II) with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 Japanese workers were isolated from their homes and accepted into internment camps. Third, the 2nd generation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with US forces during the Pacific War set up a lot in the battlefield. The US government changed the immigration policy of the people from Anti-Japanese to emancipation policy, reconstruction of Little Tokyo. Fourth, in order to succeed the experience of the Pacific War and the internment camps in response to the aging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Nikkejin, a movement for erecting a museum was started in earnest in the mid-1980s around Little Tokyo, centering on the politics, business and community leaders. At the center of the Korean-Japanese was the Colonel Kim Young-ok and the David Hyun in Village Plaza. Fifth, the Pacific War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where Little Tokyo was a symbol of disunion with Japan, but the museum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where Japanese people share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uch a Little Tokyo was accomplished by cooperation with various races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s as well as with the American people. Among them, we must remember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Americans to the building of a community, especially the 2nd generation Korean soldiers, Young-Ok Kim, who participated in the European battle, and David Hyun, who designed the Japanese Village Plaza.